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02

Dutch Modern Housings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인식의 바탕에 형성된 네덜란드 집합주택은 엄격한 가톨릭 정신과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운명이 네덜란드인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집합주택이 도시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인의 기본정신 위에 발전된 집합주택은 이념을 달리 하는 다양한 건축운동, 건축가의 의지와 실험정신, 그리고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 등이 모태가 되어 생성되었다. 필자가 몇 번에 걸쳐 연재할 흐린베르흐(Donald I. Grinberg)의 저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Delft University Press/1982)을 통하여, 네덜란드 근대집합주택을 '근대'라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시점만이 아닌 도시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선단적인 집합주거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대하고자 한다. <필자 주>

목	차
01_ 역사서문/첫머리에/산업혁명 이전의 주거상황/산업화와 도시화	
02_ 1900년 이전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03_ 1902년에 제정된 주택법/카미로 지테의 영향	
04_ 건축가의 새로운 역할	
05_ 전원도시의 전통	
06_ 집합성과 공유공간	
07_ 표준화	
08_ 이데오르기(목적과 수단)/공간의 새로운 개념	
09_ 공간의 개방성:고층화/결론	

최재석

1957년 충북 보은 출생. 1982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요코하마 국립대학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경원대, 목원대, 청주대 건축학과 강사를 거쳐 현재 한라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전공은 '건축설계·의정'으로, 특히 네덜란드 근대건축운동 중 '더 스테일(De Stijl)' 운동과 관련한 조형사상 및 색채실험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한건축학회·한국건축역사학회·일본건축학회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함. 건축사(1997)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저서로 『네덜란드 근대건축』, 『원주 근대건축』, 『더 스테일의 역사와 이념』 등이 있다.

1900년 이전의 주택공급

공업화 주택

많은 농촌 거주자들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이들이 일터 가까이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것은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노동자들이 거주할 주택 확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가들 사이에 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이 기업의 경제적 성공을 가져다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동자에게 주택을 마련해주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러한 가족주의적 박애정신의 전통은 정원이 딸린 호화라는 특징적인 주택형태를 만들었는데, 이와 같은 노력의 동기는 순수한 경제적 이기주의에서 비롯되었다.¹⁾ 기업가들에 의한 주택건설은 남북 홀란드주(州) 서북부 제지공업지역에서 1800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1831년 네덜란드 최초로 증기표백공장을 건설한 영국인 아인스워스(Thomas Ainsworth)는 1834년 초 트벤테 지역에 노동자를 위한 주택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²⁾ 아인스워스의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발전한 섬유회사의 소유주인 살로몬손(G. H. Salomonson)은 1852년 노동자를 위해 80여 가구의 주택을 지었다.

1864년, 레고트(Petrus Regout)는 자기 회사인 그릇공장의 노동자를 위하여 지은 마스트리흐트(Maastricht) 소재의 주택은 당시 가장 독자적인 노동자용 주택건설의 사례로 꼽고 있으나, 이 주택은 나중에 '인간용 창고(human warehouse)'라 불리기도 하였다. 이곳에는 70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주택은 오로지 한 개의 입구를 통해서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대단히 협소

한 것이었으나, 기업가들 사이에 노동자를 위한 주택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나중에 전원도시운동과 관련된 계획의 선구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기업가 스토크(Stork)의 후원으로 헨헤로 주택조합에 의해 건설된 사례도 있다. 이와 유사한 주택조합이 2년 앞선 1867년, 알메로(Almelo)에 설립되기도 하였는데, 이 주택조합의 형태는 1911년 헨헤로에 건설된 에트 란싱크(Het Lansink) 전원마을의 선구적 역할이 되기도 하였다.

투기성 주택

19세기 네덜란드에서 기업가와 주택조합에 의해 지어진 노동자용 주택은 예외적인 것으로 노동자 계급을 위하여 공급된 주택의 대부분은 사적인 투기대상의 하나였다. 이미 13세기 초 유럽에서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다.³⁾

19세기 중반까지 슬럼가는 없었으나 슬럼가 출현이후 이전의 계획들이 연구대상이 되면서 슬럼가는 공식적으로 법제화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⁴⁾

이렇게 건설된 열악한 주택과 당시의 건설과정은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주택개량운동의 초점이 되었다. 당시 네덜란드는 나폴레옹 영향 하에 있던 시대의 금융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이 금융정책은 주택건설에 있어서 양적, 질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이 정책에는 고정된 계급분할 토지에 대한 자본투자의 우선 할당, 저당권 설정, 그리고 해외 채권을 포함하고 있었다.⁵⁾ 프랑스의 크레디 모빌리에(Credit Mobilier)은행은 네덜란드의 3개 지점에 저

당권을 설정하여 은행 업무를 개시하였다. 본래 이것은 농업 투자를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졌으나 농업 쇠퇴로 인한 투자의 가능성 감소로 자본회수의 새로운 방법으로 주택건설시장을 찾고 있었다. 당시 주택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⁶⁾

첫 번째 저당권 은행은 1861년에 설립되었고, 1863년 사파티(Samuel Sarphati)에 의해서 네덜란드 저축신용금고가 설립되었다. 일반적으로 1870년 이전 은행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크레디 모빌리에 은행의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경제적 자유주의와 19세기 후반의 경제적 팽창 분위기는 일반 시장에서 자본가의 주택에 대한 투기가 일반화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임대주택이었다.⁷⁾

소규모 건설회사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실제 주택건설에는 관심이 없던 기업가들까지도 투기성 주택건설이 상당히 유리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⁸⁾ 즉, 저당권 설정의 가능성은 높은 이윤을 기대하게 하고 토지구입을 하는 데에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주택과 동일하게 토지는 그 자체가 투자이익을 촉진시켰다. 자본가 자신은 토지 투기에 대한 손실을 막기 위하여 주거밀도를 늘려 토지가격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했다.

이와 같이 높은 밀도의 엄청난 주택수요, 그리고 이윤획득을 위한 투자 활동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을 위한 주택공급에 있어서의 가족주의적 태도는 결과적으로 '혁명건축(Revolutiebouw)' 혹은 '날림 건축(Jerry-Buildings)'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질 낮은 주택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⁹⁾ 투기업자가 지은 주택에 사는 거주자들은

1) I. J. Brugmans, De arbeidende klasse in Netherland in de 19e eeuw 1812-1870, (Utrecht, 1973), pp.160-161

2) Brugmans, op.cit., p.161

3) Catherine Bauer, Modern Housing, (Boston,1934), p.6

4) Bauer, op.cit., p.14

5) Audrey M. Lambert, The Making of the Dutch Landscape, (London,1971), p.275

6) J. Nycolaas and R. Geurtsen, 70 jaar woningwet, nog eens 70 jaar woningnood? Plan, No.9(1972), p.20

7) Brugmans, op.cit., p.90

8) Bauer, op.cit., p.33, 슬럼가는 본래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의 분야이다.

9) J. Nycolaas, De huisvesting arbeidende klasse: Drager van maatschappelijke tegenstellingen, Bouwen 1920-1940, De Nederlandse bijdrage aan het Nieuwe Bouwen, 1971년 9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7일까지 개최된 전람회 카탈로그(Einshovon, 1971), p.12.

열악한 주거환경은 물론, 능력에 박한 임대료로 고통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많은 주택들이 실제로 중산층을 위한 것이었다는 데에 기인한다. 주택의 공급량 또한 전반적으로 적절하지 못하였다. 1870년 이후 네덜란드 경제의 급속한 팽창은 주택건설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¹⁰⁾

주택건설로 얻는 이익이 다른 분야에 비해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초기의 매력은 점점 잃게 되었다. 이윤, 운영자금, 그리고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자본은 주택건설로 얻는 이윤보다 높은 새로운 투자분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따라서 주택공급은 부진하게 되었다.

1850년과 1900년 사이에 건설된 질 좋고 값싼 주택은 500세대도 채 안되었다. 이 기간에 건설된 주택 세대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¹¹⁾ 초기의 주택밀도는 복층구조(multi-story)의 적용으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동(柱棟)의 모서리조차도 세대수를 늘리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형성된 폐쇄형 주동(closed housing block)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동기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완전 폐쇄형(total enclosure)은 후세 건축가들에 의해서 기능적, 미학적 관점에서 옹호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주택조합

1902년 주택법이 입안되기 전후의 기업용 주거지를 특징 짓는 온정주의(paternalism)는 부유한 기업가뿐만 아니라 주택조합에서도 볼 수 있었다. 1818년 도시에 사는 실업자들에게 농업을 위한 미경작지나 습지대로 이주할 기회를 주기 위해 공제조합(benevolent society)이 설립되었

다.¹²⁾ 1835년, 이 조합은 레이든에 33가구의 노동자용 주택을 지었다.¹³⁾ 그러나 주택조합에 의해서 건설된 노동자용 주택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850년대 이후였다. 오로지 노동자를 위한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최초의 주택조합은 1851년 암스테르담에서 설립되었다.

이런 주택조합과 이와 유사한 기구들의 설립은 강한 가족주의적 양식에 의해서 발전된 것으로, 근면하고 품행이 좋은 노동자들만을 위해서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로 알코올 중독자는 이와 같은 조합주택에 거주할 수가 없었다.

1853년, 암스테르담의 주택조합에 의해서 18가구가 지어졌는데, 각 세대에는 2개의 침실, 화장실, 철제 침대, 그리고 싱크대가 갖추어져 있었다. 이런 설비는 당시 독립된 침대를 흔히 볼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¹⁴⁾ 1853년 아냄에서 유사한 조합이 결성되었고 1854년에는 헤이그에서도 결성되었다. 1860년대까지 네덜란드 전체에 9개, 1870년대까지는 17개나 되는 주택조합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이런 조합의 절반 이상이 투기목적이었으며,¹⁵⁾ 나머지 절반은 가



그림 1. 노동자 계층에 적합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조합에서 지은 집합주택 (아냄 싸워드 거리에 위치함, 1854-55)

족주의적 사고에 기반을 둔 것 이었다.¹⁶⁾

예를 들면, 아냄에서 설립된 '노동자 계급에 적절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합'은 4%의 배당금을 주주(shareholders)에게 배당하였다. 또한 여기에 부가적으로 자본 소득이 예상되었다. 이와 같이 주택조합은 노동운동의 광범위한 목표의 일부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 주택조합은 1실 주거(그림1)를 건설하여, 여기에서 생긴 수익을 보다 질 좋고 새로운 주택건설로 환원하지 않았으며, 1879년에 실시된 1실 주거의 2분할(two-for-one)로 인해 생긴 실제 배당금을 4%에서 6% 범위 이내로 제한하였다. 노동자 자신의 주택건설을 위한 최초의 시도는 1860년경부터 시작된 소비자 조합운동이 계기가 되어 성장, 발전하게 되었다.¹⁷⁾

1868년 자신의 소유 주택을 짓기 위한 건설회사가 설립되고, 여기에서 장수된 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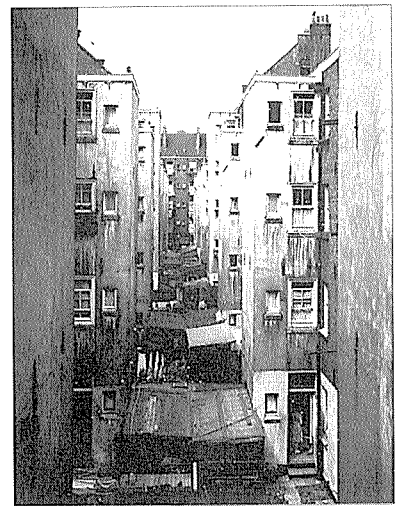


그림 2. 암스테르담 노동자용 주택조합에서 지은 집합주택이 집합주택은 로베인 거리와 디르크 하르토흐 거리 사이에 위치함, 1884

그림 1(아냄)과 그림 2(암스테르담) 사례의 비교 설명이 두 계획은 대도시 주택조합들이 개인자본의 투지로 발생한 이득으로 살아남은 사례들이다. 아냄에서는 전통적인 촌락 이미지가 잘 표현되어 있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암스테르담에서는 가족단위(the family unit)라든가 집합적 전체성(the collective whole)에 실험을 기울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암스테르담이 수직적 구성과 생산효율을 주요한 요소로 보면서 기술적 기초에 바탕을 둔 아파트 주동의 선구자였으나, 아냄은 전통적 요소를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나중에 전원도시 계획에 인용하는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 패턴이 19세기 당시에는 그다지 대립적이지 못하였다. 이런 현상은 1920년대 전후의 건축적 대립과는 사뭇 다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10) J. A. de Jonge, De industrialisatie in Nederland tussen 1850 en 1914, (Amsterdam, 1968), p. 197. (Nycolaas, p. 10에 언급되어 있다).

11) Nycolaas, op.cit., p. 13.

12) Lambert, op.cit., p. 256.

13) Brugmans, op.cit., p. 159.

14) Willemsen, De Volkshuisvesting Arnhem, p. 25. 1894년 아냄(Arnhem)에서 설립된 주택조합 Openbare Belang은 거주할 세대를 선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알콜 중독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입주를 제한하였다.

15) Brugmans, op.cit., p. 160.

16) Brugmans, op.cit., p. 159.

17) J. Th. W. Willemsen, De Volkshuisvesting Arnhem 1829-1925, (Arnhem, 1969), p. 15.

로는 임대인의 장래 주택구입을 위해서 쓰였다. 이런 협동조합은 노동운동의 광범위한 목표 중에서 몇 개만이 실현을 보게 되었다. 1902년 이전에 지어진 노동자를 위한 주택의 공급 수는 대단히 적었지만 그들은 지자체의 성격과 동등할 정도로 가장 혁신적인 노동자용 주택의 생산자였음에 틀림없었다.(그림2)

아흐네타 공원단지

1902년 주택법 형성 이전에 지어진 노동자용 주택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질 좋은 것으로는 델프트에 있는 마르겐(J.S.van Marken, 1845~1906)이 설립한 아흐네타 공원단지(Agnet Park)를 들 수 있다.(그림 3~8) 이 단지는 마르겐이 경영하는 네덜란드 효모공장의 노동자를 위해서 1884년에 설립된 것이다. 마르겐은 친프랑스적 인물로, 그가 노동자를 위하여 주택에 정원을 도입한 이념은 몰하우스(Mulhouse) 사례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동자 도시조합은 1853년에 설립되었다.

영국의 부른빌레(Bournville)도 마르겐에

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흐네타 공원단지의 주택 중 일부는 대부분 몰하우스 형태를 모방하였다. 마르겐은 오웬(Robert Owen)의 지식보다는 프로테스탄트의 설교자인 부친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다.¹⁸⁾ 마르겐은 아흐네타 공원단지가 완전히 자치부락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를 위해 노동자용 주택은 물론 커뮤니티 시설이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이곳에서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과 조합운동에 대한 지원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졌다.

공식적으로 '생활에서 우선적으로 공유자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협회'라는 취지로 설립된 아흐네타 공원단지는 마르겐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자신의 주택도 단지의 중앙에 건설하였다. 그는 노동자 생활에 대한 욕망과 양식을 미리 조사하여 실천에 옮겼다. 주택단지의 명칭은 마르겐의 부인 이름에서 유래하는데, 그의 부인 또한 부락의 모친적 역할(mother figure)을 실천한 사람이었다.

마르겐은 이와 같이 개인적 관심을 노동

자 생활에 적용시키는 한편, 노동자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의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가끔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모두를 위한 공장, 공장을 위한 모두(the factory for all, all for the factory)'라는 표어는 부락에서의 가족주의와 이기주의를 반영하고 있었다.¹⁹⁾

노동자들의 임금은 투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익에 대한 관심은 평화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²⁰⁾ 가족주의적 혹은 현실 도피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아흐네타 공원단지는 이제까지 19세기 노동자들에게 제공된 사례 중에서 주택의 질적인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다. 거주공간에 대한 기대 이상의 확보와 단지에서의 공간적 개방감은 의미 있는 혁신이었다.²¹⁾

단지계획은 쇼헤르(J.D.Zocher)가 담당하였는데, 그는 오래 전부터 영국식 정원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아흐네타 공원단지는 꼬불꼬불한 길, 풍부한 녹지대, 연못 등이 있는 픽처레스크(picturesqueness)풍 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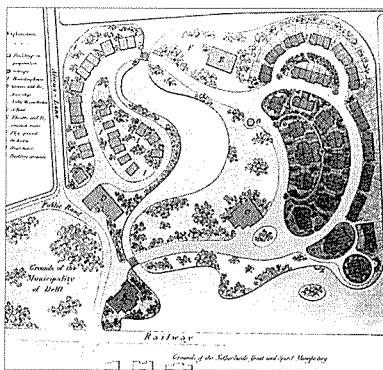


그림 3. 쇼헤르+게르크호흐, 아흐네타 공원단지에는 공장 노동자를 위한 주택단지 배치도(델프트), 1885
이 공원단지의 배치계획은 영국식 정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픽처레스크風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배치성격으로 보아 공장 노동자용 주거단지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특히 주택형태를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이 주택단지 안에 공장의 대표인 마르겐의 주택도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가 일체라는 공동체의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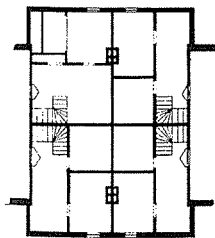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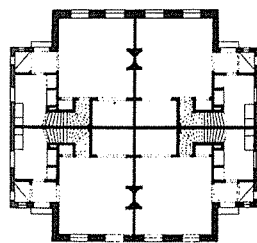


그림4. 1층 평면도(위)와 2층 평면도(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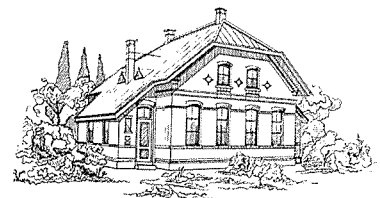


그림 5. 투시도



그림 6. 호수에서 본 주택단지의 전경, 1885

18) B. H. Pekelharig, J. C. van Marken, Woord en Beeld, No.7(1902), p.252, S.Schepel, Het Agnet Park, 미간행논문(Delft, 1969)에서 지적하고 있다.

19) 델프트 공과대학의 용어(D.de Jonge)가 저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20) The Pilgrimage into Yeast Land, The British Bakers' Press Quarterly Trade Review, July(1893), p.v.

21) M. J. I. de Jonge van Ellemeet (네덜란드 국민주택·도시건축협회의 의장)는 '아흐네타 공원단지(Agnet Park)의 공간을 구성하는 일이 건축가의 작업이라는 것을 보여준 네덜란드 최초의 주택 사례였다'고 기술한 것은 물론 여기서 '양질의 사회적 집합주택(social housing)이 좋은 건축을 의미한다'고 하는 주장이다.

De woningbouwverenigen en de architectuur, Beter Wonen (Amsterdam, 1938), p.69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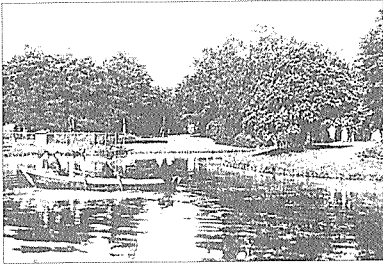


그림 7. 일반적으로 골목으로 상징화되어 온 공장이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화로운 모습. 이 주택단지는 전원도시의 비전에 대한 주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아호네타 공원단지와 같은 자기 충족적 커뮤니티 건설이 네덜란드 전원도시 운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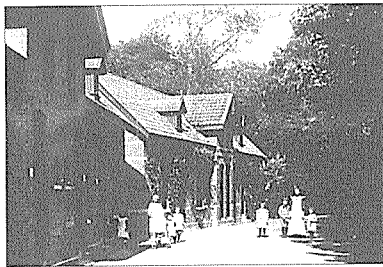


그림 8. 주택의 전경 "이 주택단지는 20년 이상 오랜 기간동안 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노동 분장같은 것은 결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에 상호 공동된 관심이 바탕이 되어, 이 두 가지 요소가 일체화되었다. 또한, 아호네타 공원단지는 네덜란드 노동형태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평화롭고 행복에 충만한 커뮤니티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부도덕성도 거부하고 깨끗하고 견직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는 공동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바꿔말하면, 사업의 상업적 성공이 노동자를 편안하고 인격하게, 그리고 일용양식을 배려한다는 것이다. ("호모를 생산하는 나라의 탐방", The British Bakers Press, Quarterly Trade Review, July, 1893)

다.²²⁾ 이는 네덜란드식이 아니라 풍부한 이미지와 위엄에 충만한 조화를 나타내기 위한 영국식 정원풍이었다.

또한, 노동자 주택에 상류층 주택의 품위를 갖는 풍부한 조화를 적용시켰다. 한 지붕 아래 4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 근처에 회사의 대표인 마르겐의 주택도 노동자용 주택과 같은 규모로 지어 시각적 연속감을 갖도록 배려되었다. 20세기 노동자 주택의 품위에 대한 희망은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을 보게 되었으나 아호네타 공원 단지에 도입된 방법과는 거리가 멀었다.

앞서 진행된 영국의 포트 선라이트 (Port Sunlight) 전원마을에 비해 아호네타

공원단지는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네덜란드 국내에서 투기세력으로부터 멀어질 경우 무엇을 건설할 수 있을까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준 중요한 사례로써 남게 되었다.²³⁾

1900년 이전의 주거환경

농촌의 열악성

대부분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투기내지 산업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²⁴⁾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은 농촌에서 볼 수 있는데, 주로 무관심과 더불어 고립 또한 무시 못 할 환경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동남부 지방은 해안지방의 경제적인 번영과 투기바람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 지방에서는 흙으로 만든 캐빈(sod-cabins)을 발견할 수 있는데, 거주자 자신이 하루 만에 지은 것으로 재료로는 나뭇가지와 흙을 사용하여 벽을 만들고, 참나무 가지로 출입문을 만들었으나 창문은 없었다. 그리고 자연 상태의 나뭇가지로 구멍(hole)을 만들고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땅 위에 굴뚝을 설치하였다.²⁵⁾ 이와 같은 주거는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직의 노동자를 위한 주거로 수백만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볼 수 있다. 1930년대까지 드렌테주(Drenthe)에는 최악의 쉼터(shelter)라고 불리는 주택이 존재하였다.

거리를 따라 지은 나열식 주택

19세기 후반, 가장 전형적인 도시형 주택은 투기꾼에 의해서 지가(地價)가 그다지 높지 않은 도심부 변두리에 건설된 것들이다. 이런 주택들은 기존의 기초를 보강하기 위

해서 파일을 박는 대신 하중도 줄이고 공사비도 줄이기 위해서 층고를 낮춘 단층으로 건설되었다. 이것뿐 만아니라 지붕 밑에도 방을 둘 수 있도록 경사지붕을 도입하였다.

이런 주택들은 세대와 세대가 접하는 경계벽을 공유하는 긴 형태로 지어졌고 기본적으로 평면계획에서 뒤쪽으로 긴 직사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관, 붙박이형 침대(cupboard bed), 그리고 계단은 실제 주요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주택의 실내 설비시설은 싱크대 및 펌프가 한 쪽의 긴 벽을 따라 설치되었다. 그러나 부엌은 가깝게 건물의 뒤편에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화장실은 건물에 붙여 설치하거나 외부에 독립시켜 부엌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5도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다락방은 최소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채광이 가능하도록 작은 창문이 한 개 설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형식을 갖는 주택은 도심지에 있는 주택과 비교하면 훨씬 나은 것으로 보인다. 자연 통풍과 채광이 어느 정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주자 또한 도로에 면하여 전용 현관을 갖게 되고, 집 뒤편에는 개인정원도 갖추어져 있었다.

주택의 증축은 일반적으로 집 뒤편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곳은 전면 도로에 대한 건축선, 인접세대, 그리고 고정하중 이상을 지지하기 어려운 기초 성능 등의 조건과 비교하여 볼 때 유일하게 증축이 가능한 장소였다.

주택의 폭은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목재의 스팬 허용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건물 폭의 제한성은 증축이 이루어질 때 문제가 발생하곤 하였다. 주

22) 초아이(Francoise Choay)에 의하면, 아호네타 공원단지는 일련의 공장부지 중에서, '가장 픽처레스크한 사례였다' 고 한다. The Modern City: Planning in the 19th Century (New York, 1969)의 p.30을 참조.
 23) 비바우트(F.M. Wibaut/1859 ~ 1936)는 암스테르담시 시의회 위원이고 1914년부터 1927년에 걸쳐 주택문제에 관한 일에 종사하였다. 그는 마르겐(van Marken)의 친구이기도 하다.
 24) 이런 주제와 관련하여 네덜란드어로 쓰여진 방대한 양의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인용하였다.
 25) H. Roland Holst, *Kapitaal en arbeid in Nederland I* (1932), p.96(Nycolaas, De huisvesting der arbeidende klasse, p.7 참조)

택의 뒤쪽에 새로운 방을 만들 때, 본래 중정에 면해 있던 창문이 증축으로 가려져 자연채광과 환기에 문제가 생기곤 하였다. 그러나 지붕 밑에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부엌과 방들을 건물 뒤쪽으로 배치한 주택은 매우 일반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나중에 많은 건축가들이 이와 유사한 부가적이고 단편적인 계획을 도입하였다.²⁶⁾

이런 기본적인 나열식 주택(row house)은 전원도시형 주택이라든가 아우드(J.J.P.Oud)의 끼프혹 집합주택과 같은 계획이 형태학(morphology)을 차용하는 전통적인 원형(prototype)이 되었다. 이런 주택형식은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계획적인 전체성을 갖는 유형으로 반복되었다.

이와 같은 주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잠재적인 영역성의 확보에 있고 거주자는 외부세계와 뒤쪽의 자유로운 세계를 그들 자신의 문을 통하여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장 최근의 주택형태로는 주택의 앞과 뒤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변형되어 있었다. 이것은 주택의 방을 보다 나은 도로 쪽에 위치하도록 하여 '아름다운 방(mooie kamer)'이라는 심리적 결과를 낳았다. 거주자들은 가능한 도로 측에 면해서는 품위를 갖도록 노력하고 이와 반대로 중정 쪽으로는 좀더 자유로움과 사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작은 다락방(tiny attic)을 갖는 원룸 주거의 외부공간 사이에서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전통적 공간의 대립성을 수정하기 위한 개혁자들의 새로운 시도는 결국 20세기의 건축 전개에 중요한 테마가 되었다.

기존주택

도시 거주자들이 대도시로 유입되었지만

이들을 위한 주택은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한 때 낮은 시민주택은 단일 가족에 의해서 사용되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각 방마다 한 가족이 살게 되는 심각한 양상으로 변하였다.²⁷⁾ 심지어 지하실(cellar)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1859년까지 암스테르담에서는 약 23,000명의 사람들이 지하실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본래 창고로서 사용된 곳으로 습기가 차고 어둡고 통풍이 안 되는 곳이었다.(그림9)

1874년 암스테르담 공중위생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차츰 주거환경이 개선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전 인구의 8%에 해당하는 시민이 지하실에 거주하고 지하실의 천장 높이가 낮아 1,000세대 정도가 어른의 키보다 낮았다는 보고가 있다.²⁸⁾

등을 맞댄 주택

1899년 실시된 암스테르담 인구조사에 의하면 세대 당 평균 거주 인원수는 5인이고 주택의 60%정도가 2개 이하의 방을 가지고 있었다.²⁹⁾ 대다수가 살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주택형식중 하나가 등을 맞댄 주택이다(그림10~12). 금융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주택은 영국에도 있었다.

등을 맞댄 주택이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이런 주택들은 세 개의 다른 주택들이 서로 경계벽을 공유하고 이 중에서 한 개의 벽면



그림 9. 지하실 주거의 형태(암스테르담 헤켈데크, 1900)

에만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평면은 거의 정방형이고 실내는 벽을 따라 부엌이 설치되고 불박이형 침상 혹은 이 보다 조금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알코브형 공간(alcoves)이 측벽 혹은 뒤쪽 벽에 설치되어 있었다. 어쨌든 이런 취침공간은 햇빛의 유입이 어렵고 또한 환기가 되지 않았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현관입구에 한 곳을 설치하여, 이곳에서 6가구, 8가구, 혹은 10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19세기말이 되어서야 세대 당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었다. 샤워실이라든가 욕조에 대한 기록은 그다지 남아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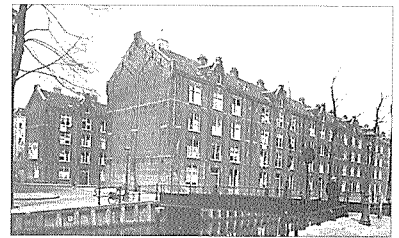


그림 10. 암스테르담 노동자용 주택건설조합에서 지은 등을 맞댄 주택의 전경(암스테르담 마르네스 거리와 베스네르크아데 사이에 위치함, 1877)
암스테르담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건설된 등을 맞댄 형식의 집합주택은 당시 건설된 다른 집합주택과 비교하여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다. 각세대는 전용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이 집합주택에 제공된 벽장형 침상(the cupboard bed)은 절대적인 휴식공간으로서 1902년 주택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건설되어 입주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공유 계단실이 보일 것임 보여 노동자용 주택의 희망을 표현하는 이데올로기적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 주택건설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주택조합은 이 집합주택보다 이상적인 주택공급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02년 주택법에서 볼 수 있는 포괄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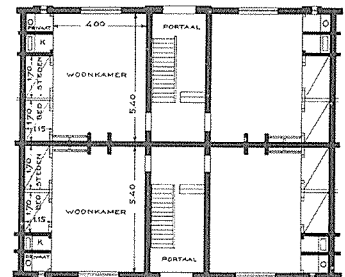


그림 11. 등을 맞댄 집합주택의 평면도
공유벽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두 세대가 형성되어 있다. 공유벽은 공사비를 절감하고 지반이 약한 암스테르담 지역에서의 안전한 구조를 위한 것이다. 또한 최소한의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방을 두지 않고 거실을 중심으로 측벽을 따라 침상 두 개와 부엌, 그리고 화장실이 붙어 있다.

26) Karel Muller에 의해 1910년에 설계되었다(Hengelo의 Het Lansink 전원마을의 주택을 참조할 것).

27) I. J. Brugmans, De arbeidende klasse in Nederland in de 19e eeuw, op.cit., p. 157.

28) Maatschappij tot nut van 't algemeen, Het Vraagstuk der Volkshuisvesting, (Amsterdam, 1886), pp. 19-20.

이런 주택들은 도로와 접한 곳이 없어 개방된 공간이 있을 수 없었다. 또한 주택 뒤쪽의 대부분이 완전히 내장화되어 1차원적이었다. 즉 이런 형식의 주택들은 토지 투기가 극심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860년 로테르담에서 모든 주택들은 건물 기초파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런 다층구조의 형식은 좀 더 많은 단위면적 계획으로 기초파일 공사비를 낮추는 계기를 만들었다.³⁰⁾ 적절한 환기의 부족, 1인당 전용면적의 협소, 긴 노동시간, 그리고 저임금 등의 요인이 이와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양방향에서 채광이 가능한 주택

이 집합주거 형식은 두 세대가 서로 등을 맞댄 집합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구조, 예를 들면 건물 정면은 물론 건물 배면에서도 채광이 가능하도록 배려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나, 고정 창으로 인하여 통풍은 되지 않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그림13~16)

이 주택은 취침을 위한 시설인 불박이형 침상내지 알코브형 취침공간으로 건물 안쪽 깊숙이 갖추어져 있는 정방형 공간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부엌은 주택의 뒤쪽이나 실내의 별도 독립공간에 마련되어 있었다. 19세기말에는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과 빨래를 말리기 위한 발코니와 부엌을 인접하게 설치하였는데, 이런 외부공간은 1층 거주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따라서 1층 거주자가 가장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위층으로 갈수록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였다.

오래된 사진을 보면 개인정원에서 작은 동물의 사육은 물론 채소재배도 가능하여 거주자들이 도심 속에서 전원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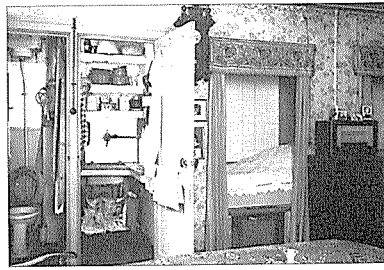


그림 12. 실내의 전경
우측부터 번기만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싱크대와 싱크대 위의 찬장, 그리고 그 옆에 벽장형 침상공간이 보인다.



그림 13. 투기 목적으로 건설된 집합주택의 증정 전경(암스테르담), 19세기.

파리에서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사람과 아래층에 사는 사람 사이에 사회적 계층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암스테르담에서는 파리만큼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암스테르담에서는 사회적 계층화가 보이지 않았지만 위층으로 갈수록 임대료가 저렴하여 상대적으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임대료를 비싸게 내고 살았다. 이것은 1층에 사는 사람이 주동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정을 중심으로 개인용 전용공간이 배려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옥외공간의 확보는 거주자 대부분이 농촌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제도화된 것이다. 19세기말경 위층 세대에는 목재로 만들어진 발코니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1층에 거주하는 세대에 개인정원이 갖추어져 있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배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발코니 설치에 대한 배려는 가능성으로나 미학적으로나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던 설치되어 있지 않든 도로에 면한 정면과 중정을 향한 배면과의 대립성은 커다란 결과를 초래하였다.

목적으로 만든 외부공간에 나무로 만든 헛간이 들어서고,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활용품을 보관하는 창고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외부공간은 점점 폐쇄된 공간으로 전락하여 채소 등의 재배를 위한 텃밭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이 1층 거주자만이 단독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의 이미지는 시각적 카오스(visual chaos)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불박이형 침상과 알코브형 취침공간

당시 모든 주거형태 중에서 가장 일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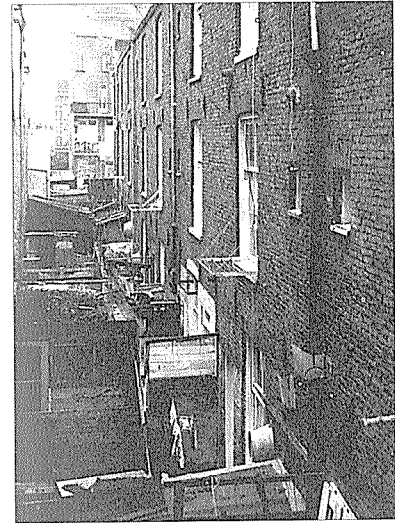


그림 14. 도로축의 파사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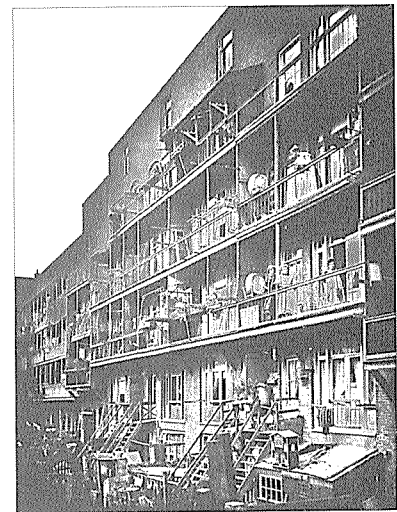


그림 15. 목재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는 위층의 전경

인 것은 이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커튼이나 목재문으로 가린 불박이형 침상(the bedstede), 즉 built-in bed였다.(그림 11 참조)

이와 같은 침상은 일반적으로 두 명의 어른과 한 명의 어린이를 위한 취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어린애는 부모나 형제자매의 발끝에서 움츠려 자곤 하였다. 한 개의 불박이형 침상에 8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지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¹⁾

29) J. Nycolass, De huisvesting der arbeidende klasse, op.cit., p.13.

30) N. Luning Prak, Zeventig Jaar woningwet: huizen, plannen, voorschriften, Plan. No.11(1972), p.30.

31) Brugmans, op.cit., p.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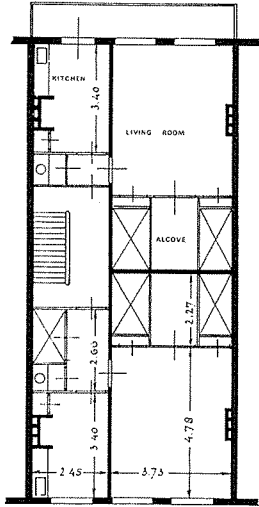


그림 16. 전형적인 알코브형 집합주택의 평면도 사례(암스테르담), 19세기. 알코브형 취침공간은 벽정형 침상보다 넓은 내부공간을 갖고 있었지만 통풍, 환기, 그리고 일조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암스테르담에서의 알코브형 취침공간이란 등을 맞댄 주택형식을 말한다. 여기서 보여주는 평면도는 주동의 일부만으로 주동 전체의 중심인 중정을 향하여 옥외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한 세대는 도로에 면하고, 또 다른 세대는 중정을 면하여 있다. 알코브형과 등을 맞댄 형의 평면적 구성의 특징을 보면, 침상 및 설비시설이 한 쪽 벽을 따라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등을 맞댄 형과는 달리 알코브형에서는 가실을 중심으로 설비시설과 취침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불박이형 침대보다 조금 확장된 알코브형 취침공간(그림17)은 침대 옆으로 서서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것도 불박이형 침상과 마찬가지로 환기와 채광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혼잡하고 어둡고 침침하며 심지어 압박감을 주는 취침공간은 심층적이고 심리학적인 집착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주거환경으로부터의 탈피는 19세기 나 20세기의 주요한 공간변혁의 대상이 되었다.

1909년 설립된 조합에 의해서 지어진 첫 번째 집합주택인 암스테르담 로흐다레 집합주택(다음 회 참고-역주)은 1902년 제정된 주택법의 기준에 따라 지어진 것으로,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불박이형 침상과 알코브형 취침공간에 대한 강한 향수를 느끼

고 있었다. “불박이형 침상과 알코브형 취침공간에 대한 미련은 상당히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얼마나 기묘한지는 몰라도, 독립된 새로운 취침공간에서 이들은 이전과 같은 가정(home)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공간의 점유성은 점점 사라져 버렸다.”³²⁾

즉, 불박이형 침상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했던 일반적인 스칸십이 독립공간으로 인해 빼앗겼다는데서 오는 일종의 허탈감과 같은 것이었다. 1923년, 미국인 평론가도 “목재문으로 개폐 가능한 불박이형 침상은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느끼고 있는 취침공간이다”³³⁾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바셀라드(Gaston Bachelard)의 저서 『공간의 시학』(1958)을 읽는 것만으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영역적 현상(territorial phenomenon)을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둥우리(nests), 조개껍질(shells), 길모퉁이(corners), 그리고 내면의 무한성(intimate immensity)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현상학, 심리학, 그리고 문화적 비평의 조합을 도입하였다.

“우리는 집을 세계의 모퉁이이다. 가끔 전해 내려온 것과 같이 이것은 우리를 최초의 우주이며 모든 의미에서 우주(cosmos)인 것이다. 우리들이 이런 주거를 보다 친밀하게 들여다본다면 보잘것없는 집일지라도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생략) 그들이 꿈을 갖고 있다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것을 함유하는 근원성이 있는 곳, (생략) 집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언인가를 묻는다면 집은 꿈을 꾸게 하는 은식처이고, 집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집은 평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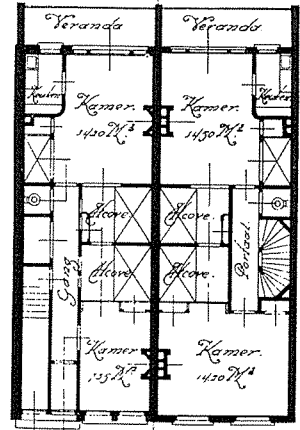


그림 17. 전형적인 알코브형 집합주택의 평면도 사례(로테르담), 19세기. 로테르담의 알코브형은 이중 알코브형 취침공간(double alceve)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암스테르담의 알코브형보다 공간적으로 잘 배려되어 있다. 한 세대는 전 후면이 외부로 향하여 있다. 한쪽은 도로에 면하고 다른 한쪽은 주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중정을 향하여 있다. 이러한 양쪽 시선 확보에도 불구하고 알코브형 취침공간은 가능적으로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이것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비판하는 일장보다는 위생적인 주거에 대한 희망의 결과였다. 이러한 주거형태는 장래 '신즉물주의 집합주택 형식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하게 꿈을 꾸게 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들의 꿈 안에서 집은 언제나 커다란 요람이다. (생략) 그러나 백일몽 그 자체는 제한되고 단순하며 집에 갇혀 있는 듯한 공간에 대한 희미한 회상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따뜻한 위안을 주고, 그리고 넓히려고 하지 않지만 소유하려는 욕구를 극복하려는 공간에 있어서의 경험인 것이다. (생략) 둥우리에서 무엇보다도 조개껍질과 같은 이런 일련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의 첫 번째 이미지, 다시 말하면 우리를 내면에서 원시성을 끌어내는 이미지로서 그 특징을 나타내고자 한다. 인간을 '구석으로 밀어넣는(withdraw into his corner)'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줄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육체적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다.”³⁴⁾ ㉮

32) Cooperative Bouwvereniging Rochdale, Rochdale 50 Jaar, (Amsterdam, 1953), p.33.

33) Edith Elmer Wood, Recent Housing in The Netherlands, Architectural Forum, 38, No.4(1923), p.173.34) Gaston Bachelard, The Poetics of Space(1958), 영어版(Boston, 1964).